

어린이 도서관의 전인적 치유환경에 관한 연구

-루돌프 슈타이너의 이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Holistic Healing Environment of Children's Library

-Focused on the theory of Rudolf Steiner-

김혜연* 김광호** 진달래***
Kim, Hye-Yeon Kim, Kwang- Ho Jin, Dal-Rae

Abstract

The theme of this study is holistic healing environment of children's library and it was researched on the basis of anthroposophy theory of Rudolf Steiner. According to Steiner's theory, human being consists of body, spirit, and soul. Especially, children are sensitive ones, and through synthetic function of 12 kinds of senses, they can be holistically healed (healing of body, spirit, and soul). As the sense independently functions or it is a element that cannot be described, it needs spatial plan to support synthetic function of it. We classified the healing space's meaning of children library by motion (including art and music), reading, & landscape healing activities and analyzed spatial characteristic to support each activity.

키워드 : 전인적 치유환경, 루돌프슈타이너의 12감각, 울동치료, 독서치료, 조경치료

Keywords : Holistic healing environment, 12 kinds of senses of Rudolf Steiner, Motion healing, Reading healing, Landscape healing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어린이 도서관은 어린이와 보호자가 모여 지적이며 정서적인 교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근린 공동체의 공공 시설로서의 역할이 점차로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독서를 위한 공간이 아닌 인격형성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어린이도서관계획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진정한 인격발달을 위한 공간 형성의 방안으로 총체적 측면-물리적,사회적 그리고 심리적 측면-에서 루돌프 슈타이너의 이론을 적용하여 전인적 치유환경형성을 위한 건축계획방향의 제시를 이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인지학에 근간을 두는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간관은 영혼의 활동을 통해 자기만의 내면세계를 형성해 가는 신체·영혼·정신의 통합적 존재로서 인간을 파악하고 있다.¹⁾ 그는 보이는 세계 배후에 보이지 않는 세

계가 존재하고, 사람의 내면에 잠재 되어진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배후의 드러나지 않는 정신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정신의 세계는 우리의 사고 활동을 통한 불변의 객관적인 내실의 세계이며, 이 같은 정신 영역은 누구나 갖고 있다. 슈타이너는 어린이가 정신세계에서 영혼의 세계로 그리고 육체의 세계로 내려오는 존재라고 정의하여 어린이를 교육 시키는 일은 육체를 영혼과 정신의 방향으로 길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어린이를 육체와 영혼과 정신을 포함한 총체적 존재로서 파악하고 전인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인간이 지닌 모든 능력을 조화롭게 육성하려는 교육을 시도하였다.

그는 교육과 감각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신체는 감각체로서 외부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극을 육체감각으로부터 받아들이며, 부분감각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영혼감각의 작용을 지원하고, 이들의 통합적인 작용으로 인간의 본질을 결정짓는 정신감각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감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게 되었다. 특히 감각을 기르는 데는 시기가 있고, 어린이들의 성장시기가 감각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 시기에는 외부세계의 혼란스러운 자극요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내면세계와 외면세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기 위한 주변 환경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신체적·사회적·그리고 심리적 요소를 고려한 총체적 감각의 전인적(Holistic) 치유 환경은 어린이들의 성

* 정희원, 인하대학교 건축환경미학실험실 연구보조원

** 정희원, 인하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 정희원, 인하대학교 건축환경미학실험실 연구보조원

*이 연구는 2007년 인하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함

1) 엄주희, 발도르프 교육학에 관한 연구 :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장 과정에 특히 중요한 공간 구성의 근간이 되어 건축계획 시 반영되어야 하며 어린이 도서관은 이러한 포괄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학교와 가정 중간의 근린 공동체 영역으로서 중요하고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인 것이다.

1.2 연구방법과 범위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인 감각발달을 통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슈타이너의 12감각을 작용 관계에 따라 네 가지 육체감각(촉각, 생명감각, 고유운동감각, 균형감각), 네 가지 영혼감각(후각, 미각, 시각, 열감각) 그리고 네 가지 정신감각(청각, 언어감각, 사고감각, 자아감각)으로 분류²⁾하고, 어린이의 감각발달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크게 다섯 가지(미술·운동·음악·조경·독서)로 나누어 각 행위와 감각기관의 형성 및 발달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위의 분석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독서의 행위를 주로 제공하는 어린이도서관³⁾의 기존 사례분석을 통해 전인적(Holistic) 치유환경을 위한 건축계획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례분석은 음악·미술·운동이 건축 공간 계획 시 통합적으로 다루어짐을 고려하여 운동을 하나의 범주로 간주하고 운동·조경·독서치유 행위를 지원하는 공간에 대해 분석하였다.

2. 본 론

2.1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 이론

인지학(anthroposophy)의 어원은 사람을 뜻하는 안트로포스(anthropos)와 지혜와 지식을 뜻하는 소피아(sophia)로 이루어져 있다. 슈타이너의 이론은 피테의 자연관과 인간관에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어 갔다. 그는 자신의 고유한 연구 결과들을 집대성하여 자신의 정신과학적 연구방법으로 사용했으며, 그것을 인간의 참된 본질을 의식하도록 이끈다는 의미로 인지학이라 불렀다. 인지학은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킴으로써 인간의 인식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전시키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저서, 「신지학-Theosophie」의 서문에서 “인간에게는 초감각적 신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이 주어져 있다고 확신했으며, 인간의 본질과 사명은 초감각적이며 신적인 세계와의 관련 속에서 파악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슈타이너의 주요 관심은 정신이라는 실재에 도달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에 도달하는

2) 알베르트수스만, 영혼을 깨우는 12감각, 섬돌출판사
 3) 신현정, 어린이도서관의 건축계획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2005
 :어린이도서관은 경험을 축적하는 이론적 환경이고 가정, 학교, 사회는 실제로 경험을 이행하는 실제적 환경이므로, 이론적 환경과 실제적 환경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데 상호 유기적인 혼합관계에서 어린이가 경험을 재구성하면서 충실하게 생활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즉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 종합교육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것이 신비적이고 모호한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인식에 의한 것이었다.⁴⁾

2.2 루돌프 슈타이너의 12감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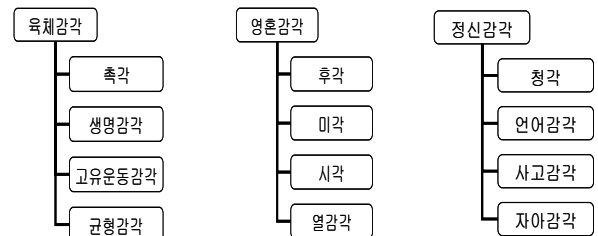
슈타이너의 통합적 인간관에 의하면 인간은 신체·영혼·정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로서 다양한 감각을 통해 정신세계 및 물질세계에 교류할 수 있다. 슈타이너의 인간의 3원적 관계에 대해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는 눈을 통해 하늘의 별을 바라본다. 이 때 영혼이 경험하는 기쁨은 내 안에 속한 것이다. 그러나 사고와 정신이 파악한 별들의 운행 법칙은 나의 것이 아니라, 별들에게 속한 것이다. 결국 인간은 세 가지 세계의 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신체를 통해 지각한 세계에 살 수 있으며, 영혼을 통해 자기 자신의 세계를 구상할 수 있고, 정신을 통해 앞의 두 세계보다 고차원적인 세계가 내 안에 드러나게 된다.”⁵⁾

감각기관은 외부 세계를 경험하는 도구로 어린이들은 전체를 감각체로 보는데 이 시기에는 다양한 감각의 훈련을 통해 내적·외적 치유를 이룬다. 슈타이너는 인간을 형성하고 있는 감각을 크게 육체감각, 영혼감각 그리고 정신감각으로 구분한다.

육체감각을 구성하는 세부 감각은 촉각, 생명감각, 고유운동감각, 균형감각으로 분류되고 영혼감각은 후각, 미각, 시각, 열감각(온도감각)으로 구성되며 정신감각은 청각, 언어감각, 사고감각, 자아감각으로 나누어진다. 슈타이너의 이론에서 다루지는 감각기관은 표면적이고 물리적인 속성이 아닌 심오하고 깊은 내면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12감각의 12라는 숫자가 가지는 속성 또한 우주의 운행 법칙과 연관이 있으며 인간 자체를 하나의 소우주로 정의하고 우주가 부분이 아닌 하나의 구성체로서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의 감각기관 또한 각각의 세부 감각들이 불가분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어 12감각이 상호연관하며 작용한다고 보았다.

표1. 감각기관의 분류



4) 김미숙, 루돌프 슈타이너의 교육 예술론 연구 : 오이리트미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학과, 2002
 5) 정윤경,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교육론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1998

표2. 감각기관의 역할⁶⁾

육체감각	촉각	외부와 나의 경계면에서 작용하는 감각으로 외부세계를 통해 나 자신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감각기관이다.
	생명감각	인간의 생명활동을 감시하는 감각으로 신체적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기쁨과 슬픔, 고통 등을 통해 몸의 상태를 알려준다.
	고유운동감각	인간의 의지와 계획에 의해 행동함으로써 신체에 내가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감각기관이다.
	균형감각	자신을 인식함과 동시에 주변세계와의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감각으로 자아의 의식과 타자의 인식을 동반하도록 만들어준다.
영혼감각	후각	단순히 냄새를 맡는 것뿐만 아니라 냄새라는 자극으로부터 좋고 나쁨 등의 선악의 판단을 유도하는 감각기관이다.
	미각	촉각, 열감각 등의 다른 감각과 조화를 이루며 반응하며 후각과는 달리 강제적이지 않은 감각기관이다.
	시각	항상 열려있는 감각기관으로 고유운동감각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눈으로 들어오는 자극은 사고 작용을 유도한다.
	열감각	새로운 외부세계의 자극을 경험하는 감각으로 인간이 끊임없이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감각기관이다.
정신감각	청각	외부세계의 자극을 몸속 깊숙이까지 받아들이는 감각으로 물질의 본질을 파악한다.
	언어감각	자신과 타인과의 상호 의사소통에 관계되는 감각기관이다.
	사고감각	언어감각보다 한 차원 높은 개념으로 생명감각과 대비되는 감각으로 자기의 존재를 줄이고 타아에 온전히 집중하는 감각기관이다.
	자아감각	나를 타아로부터 분리하여 나라는 존재를 개별적인 독립체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타인의 존재를 나와 같은 독립체로 인식하는 감각이다.

2.3 5가지 치료의 정의

1) 율동치료

춤/동작 치료는 음악, 미술, 연극 등과 함께하는 예술 치료의 한 분야로 미국의 춤 치료협회에서 규정한 춤 치료의 정의에 의하면, “개인의 정서와 신체를 통합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심리치료에 동작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⁷⁾ 인간의 신체적 움직임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관계없이 내면을 그대로 표현하는 행위이다. 신체는 정신과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기 때문에 신체적 움직임은 곧 정신과 연관되어있다.

6) 알베르트수스만, 영혼을 깨우는 12감각, 섬돌출판사, 요약정리
7) 양희아, 전인치유를 위한 춤/동작 치료 프로그램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신체, 정신 그리고 영혼의 일체를 인간의 근본으로 보는 슈타이너의 이론에 의하면 율동치료는 인간의 전인적 치유에 가장 적합한 치료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율동치료를 하는 행위자는 시각적 감각을 통해 자신의 신체적 움직임을 보게 되며 이는 곧 내적감각인 생명감각을 형성하는 근간이 된다.

율동을 통해 경험한 외적감각들은 다섯 가지 치료 행위 중 가장 적극적으로 내적감각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데 이는 세 가지의 내적감각이 근육의 움직임으로부터 형성되는 자극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활동적인 신체적 움직임으로 인해 아동은 스스로 닫혀있던 마음을 열게 되고, 활발한 에너지의 기운이 신체에 분포하면서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 언어감각과 사상감각 발달에 도움을 주는 율동치료는 사회적 활동을 시작하는 아동들의 감각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미술치료

미술치료란 미술과 치료라는 두 영역의 이해 아래 미술적 재료를 이용하여 개인이 작업 과정에서 자신과의 대화-내면적 탐색-를 가능하게 하고 건강한 생체리듬-호흡에서 들숨과 날숨의 적절한 리듬-의 회복을 통한 심리적 치료 방법이다.

치료로서의 미술은 감상을 하는 간접적인 대상이 아닌 활동의 매개체가 되어 직접적인 참여를 통하여 내면의 발전을 유도하는 대상이 된다.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하면서 아동은 일차적으로 다양한 시각적 경험을 하게 되고, 손과 눈의 감각에 의지하는 조형 작업을 통해서 시각과 촉각의 감각을 동시에 받아들일게 된다. 아동은 미술이라는 행위를 하면서 스스로 내면의 세계에 집중하게 되고, 의식적이 아닌 무의식적인 행동에 근접 하게 된다. 따라서 미술 치료는 아동의 생각이나 느낌, 감정들을 미술적인 매체를 통해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도움으로써 개인의 부정적 감정을 정화시켜주고 미술적 자기표현을 통해 자아존중 및 성취감을 재발견하도록 하는 심리 치료적 효과를 지닌다.

3) 음악치료

Burscia(1989)는 음악치료를 “클라이언트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음악적 경험과 관계들을 통해 역동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체계적인 치료 과정”이라고 정의 했고, 미국 음악치료학회에서는 “음악치료는 정신과 신체건강을 복원,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한 치료적 목적을 위해 음악을 사용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음악치료의 방법에는 노래 부르기, 음악 연주, 노래 듣기 등이 있다. 치료적 기능을 갖는 음악의 요소를 구분해보면 음고, 음정, 음색, 강약, 리듬, 화성 그리고 가사로 나누어진다. 노래는 완전히 영혼으로부터 나오면서 내적세계가 표현될 수 있다. 인간의 목소리는 언어와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장 친밀하고 개체적인 도구

이다. 사람들은 노래할 때 아무것도 숨길 수 없게 된다. 노래 할 때 음향은 인간 존재의 핵심인 인간의 내면에서 나온다. 게다가 인간과 외부세계를 연결시키는 공기의 흐름인 호흡을 깊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하는 것은 건강에 유익하고 리드미컬한 행위이다. 다음은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한 볼프강 폰 괴테(1749)의 시를 인용한 대목이다.

“ 호흡에 두 가지 축복이 있다:
공기를 들이마시고, 다시 내쉴다.
공기를 마시면서 몸이 움츠러들다가, 내쉬면서
원기를 회복한다.
인생은 이렇게 경탄스럽게 뒤섞여 있다.
그대는 자신이 억압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대는 다시 석방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라.”

4) 독서치료

독서치료(Bibliotherapy)란 말의 어원은 biblion(책, 문학)과 therapeia(도움이 되다)라는 두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근본적으로 독서치료는 문학을 사용하여 정신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즉 문학이 치료적인 특성을 가졌다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⁸⁾

독서치료에서는 인간의 의사소통 전체과정을 포괄하여 자아실현을 증진 시키고 정신 건강을 유지시켜 정서적 문제를 예방하고 순화하는데 효과가 있다. 아동에게 독서는 일이 아닌 놀이의 일부분으로 인식되어야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독서를 하면서 아동들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게 되어 정신의 질적인 측면을 향상시키고, 사고능력을 키우게 된다. 또한 정확한 감정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의 경우 기쁨과 위안 등의 간접적 경험을 통해 정신적 만남을 이루게 된다.

독서를 통해 아동은 자신의 내면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동시에 타인과의 정신적 교류도 나누게 된다. 자신과 자신의 대면을 통해 자아개념 형성에 근간을 형성하고, 정신과 영혼의 조화로운 질적 향상을 통해 스스로 전인격체로 양성하도록 돕는다.

5) 조경치료

조경의 사전적 의미는 ‘경치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다. 최근 정신적 치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조경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조경치료는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치료 효과를 얻는 원예치료와 간접적 감각의 체험을 통해 치유효과를 얻는 경관치료로 나누어진다.

A. 경관치료

경관이란 시각적인 한 번의 조망으로 이해될 수 있는 사물들과 관련된 것으로 여기에는 자연적 요소와 인공적 요소가 있다. 본 논문에서 경관치료의 요소는 도심 속 주거단지 내에 위치하는 어린이 도서관의 치유환경에 대한 분석이므로 자연적 요소에 대한 계획분석에 중점을 둔다.

B. 원예치료

1991년 미국원예치료협회가 내린 원예치료의 정의는 ‘사람의 사회적, 교육적, 심리적, 신체적 적응력을 향상시켜 몸과 마음과 기분을 개선시키기 위해 식물과 원예활동을 이용하는 과정이다. 본래 원예치료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삶의 질적 개선이라는 목표아래 일반인까지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⁹⁾

사람은 자연으로부터 분리되어 생각 되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햇빛, 공기, 물, 나무 등 자연적 요소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력을 갖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 특히 환경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아동은 자연으로부터 다양한 자극을 체험하게 되고 조경이 구성된 공간 속에서 아동들은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의 자유를 느끼며 양(+)의 에너지로 충만하게 된다.

표.3 원예치료의 효과¹⁰⁾

	효과	세부 내용
인지적 측면	어휘력과 의사소통기술 향상	새로운 용어와 개념들을 배우게 되어 어휘력이 증가되고 대화의 폭이 넓어진다.
	감각지각 자극	식물을 가까이 함으로써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을 통해 주변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이를 통해 감각과 지각능력이 향상된다.
사회적 측면	집단 밖에서의 상호작용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얻으며 사회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
정서적 측면	창의력과 자아표현 계발	식물의 종류, 색, 배합, 배열 등을 통해 창의력과 자아 표현력이 계발된다.
신체적 측면	소근육과 대근육 발달(근육운동기술 개선)	식물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쥐는 연습과 이완,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의 유연성 증가로 소근육이 발달되며 전신 사용으로 대근육이 발달하게 된다.

9) 강혜원, 치료정원 관점에서 본 친환경 아파트의 정원실태 연구조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0) 강혜원, 치료정원 관점에서 본 친환경 아파트의 정원실태 연구조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8) 이재연,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독서 치료와 적용과 전망,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센터, 2001

2.4 5가지 치료행위와 12감각의 연관성

표.4 치료행위와 슈타이너 12감각과의 상호연관성의 정도

	치료 감각	치료				
		운동	미술	음악	독서	조경
육체 감각	촉각	o	o	o	o	o
	생명감각	o	o	o	o	o
	고유운동감각	o	△	△	△	o
	균형감각	o	△	△	△	o
영혼 감각	후각	△	△	x	△	o
	미각	x	x	x	x	△
	시각	o	o	△	o	o
	열감각(온도감각)	△	△	△	o	o
정신 감각	청각	o	x	o	o	△
	언어감각	△	△	o	o	△
	사고감각	o	o	o	o	o
	자아감각	o	△	△	o	△

슈타이너의 이론에 따르면 교육은 12감각 전체의 활성화를 위한 전인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교육을 위한 환경 또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위 표에서는 감각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다섯 가지(운동, 미술, 음악, 조경, 독서) 치료행위와 감각기관과의 연관성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감각이란 개별적 영역으로 작용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통합적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표4는 12감각기능들과 치유행위의 연관성 정도를 이해하는데 유효한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① 운동: 청각적인 요소나 시각적인 요소에 의해 자신의 신체움직임을 활성화 시키고, 운동 행위 중 신체 접촉으로 인해 촉각적 감각과 온도감각이 작용하고, 1차적 감각들로부터 받아들인 자극으로 생명감각, 운동감각 그리고 균형 감각이 가장 활발하게 형성된다. 양(+)의 에너지로 충만한 신체로 인해 언어감각과 자아감각 형성 시 긍정적인 정신을 갖도록 지원한다.

② 미술(조형): 촉각과 시각에 의한 경험으로 인해 온도감각이 형성되어 생명감각 발달을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내적 측면인 사상감각과 자아감각 발달을 이루는데 중요한 심리적 안정을 제공한다.

③ 음악: 청각이 주가 되어 작용하며 심리적 상태변화에 많은 영향을 준다. 리듬적 요소는 사람의 운동감각을 작용시키며 자신을 타인으로부터 개방시키도록 만들어 모든 요소를 수용하는 상태로 만든다. 따라서 3차적 감각인 언어, 사상, 자아감각 형성을 위한 심리상태를 지원한다.

④ 조경: 자연은 사람의 오감을 자극시키는 대상이다. 6가지 1차적 감각의 가장 활발한 훈련을 통해 생명감각, 운동감각, 균형감각을 작용하게 되며 인간 내·외부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언어감각과 자아감각 형성을 돕는다.

⑤ 독서: 시각적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지식과 정보는 정신의 질적·양적 향상을 지원한다. 신체적 활동보다는 정신적 활동이 주가 되기 때문에 내적 측면의 발달이 주가 되어 언어감각, 사상감각, 자아감각 형성에 틀을 마련해준다.

3. 사례 분석

다음의 최근에 지어진 세 가지 어린이 도서관 사례는 수도권 중산층 지역에 있는 것으로서 다양한 치유적 지원성을 통해 상업적 사교육공간에 비해 비교적 그 사용빈도가 높은 것들로 선정하여 조사한 것이다.

1) 부평 기적의 도서관

특성	대상장소	프로그램	채광 (빛은 시각, 열감각, 등의 감각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요소)	치유적 지원성내용
독서	 <p>개방형 공간</p>	<p>2층 높이의 층고로 계획된 대공간으로 실의 구분 없이 평면상의 굴절된 공간의 형태가 독서를 하는 영역임을 나타낸다.</p> <p>주변의 영역과 단면상 다른 단차를 이용하여 공간의 성격이 달라짐을 알려준다.</p>	<p>공간의 한 쪽 면 전체가 유리로 구성되어 있어서 1, 2층 열람실 내부에 자연광선이 충분히 유입되고 있다. 특히 개방형 독서 공간은 유리면과 맞닿아 있는 영역에 구성되어 있어 독서를 하면서 직접적 빛의 유입을 느낄 수 있다.</p>	<p>도서관의 입구부분부터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도서관 내부의 독서공간은 층고가 높고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어 다양한 시각적 요소가 유입된다. 고유운동감각을 활용하여 자유로운 신체활동을 할 수 있고 전면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으로부터 열감각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독서를 통한 사고감각과 더불어 타인과 공유하는 공간의 제공으로 의사소통에 관계하는 언어감각을 훈련시키고 타인의 존재를 인식함으로써 자아감각의 활성화를 돕는다.</p>
	 <p>폐쇄형 공간</p>	<p>시각적으로 산만한 개방형 독서공간과 달리 닫힌 공간으로 구성되어 타인의 방해받지 않고, 독서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다.</p>	<p>반투명 유리를 사용하여 직사광선이 한 번 반사되고 남은 간접적인 빛이 유입되는 공간으로 고요하고 정적인 분위기를 유도한다.</p>	<p>개방형 독서공간과는 달리 독립적인 공간을 제공하여 자신의 내면과의 대화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깊이가 있는 사고감각의 활성화를 돕는다. 직접적인 빛이 아닌 여과된 빛을 도입함으로써 차분한 공간의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p>
조경	 <p>외부 조경</p>	<p>도서관의 전면 유리를 둘러싸고 있는 조경적 요소는 내부의 개방형 독서 공간과 접해있어서 외부의 아파트로부터의 경직된 시각적 요소를 차단하고 자연적 요소를 체험케한다.</p>	<p>근접한 거리에 고층의 건물이 없고 공원의 개방된 공간과 연계된 위치에 있어 자연채광이 충분히 제공되는 장소에 구성되어 있다.</p>	<p>인간은 대우주에 속한 존재로서 자연과의 교류를 추구한다. 시각적으로 녹색의 요소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제공해주며 후각의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내부 개방적 독서공간에서 바라보는 시각적 요소로서 작용하며 생명체와의 대면을 통해 생명감각을 느낄 수 있다.</p>
운동	 <p>교육 프로그램 요소</p>	<p>열람실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공간으로 유리를 이용해 성격이 다른 영역으로 구분시켰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간으로 10-15명 정도의 어린이를 수용한다.</p>	<p>공간 내부의 한 쪽 벽면에 있는 작은 창을 통한 채광과 도서관의 전면 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빛이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p>	<p>신체적 활동이 활발한 시기의 어린이들에게 정적인 활동으로서의 독서와 대비되는 공간으로 고유운동감각과 균형감각의 작용을 돕는다. 또한 자신의 신체적 움직임과 사물의 접촉을 통해 촉각적 감각이 활성화되고 움직임을 인식하기 위해 시각적 작용이 동반되며 타인과 함께하는 활동으로 언어감각과 자아감각을 활성화시킨다.</p>
	 <p>단순한 움직임</p>	<p>1층과 2층을 연결하는 램프 옆 벽면에 시각적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배치되어있어 어린이들이 시각적 정보를 얻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p>	<p>벽면에 있는 직사각형의 창문과 천정에 있는 원형의 창을 통해 빛이 유입되고 있어서 양 벽면이 막혀있으나 밝은 포인트의 채광 프레임 도형으로 구성되어 있다.</p>	<p>고유운동감각과 시각의 상호연관성을 강조한 공간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동시에 신체적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전면 보이는 창과 천장에 배치되어있는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시각으로 전달되어 열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경사진 램프를 이동하면서 단순한 균형감각의 활성화를 돕는다.</p>
		<p>도서관 내부와 외부의 테크가 세 개의 문을 통해 연결되어 있어서 열람실 내부에서 자유롭게 외부로 나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p>	<p>외부 공간에 비를 막아주는 정도의 캐노피만 존재하고 개방된 공간과 맞닿아 있어서 자연광선의 유입이 원활하다.</p>	<p>도서관 내부에서 연결되는 외부공간은 조경치유와 울동치유의 기능을 동시에 지원한다. 자연의 요소를 시각, 촉각, 후각의 감각으로 체험하며 신체적 활동을 통해 생명감각, 고유운동감각, 균형감각등을 체험케 한다.</p>

2) 시흥 어린이 도서관

	특성	대상장소	프로그램	채광 (빛은 시각, 열감각, 등의 감각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요소)	치유적 지원성내용
	개방형 공간		열람실을 연령별로 분리시켜 놓아 필요한 정보습득을 위해서는 이동을 해야 한다. 열람실 내부는 전면창이 배치되어 있는 공간에 타인과 공유하는 개방적 독서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양쪽 벽면 연속의 구석창을 통해 내부 독서공간에 입체적인 채광이 제공된다.	소규모 열람실로 구분되어지는 공간이 경사진 벽면으로 이루어져 있어 시각적으로 실제 공간보다 확장되어 보이고, 양쪽 벽면으로 들어오는 빛의 요소로 인해 촉각감각이 작용한다.
독서	폐쇄형 공간		개방적 독서 공간 내부에 개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으로 단차를 다르게 구성하여 서로 다른 기능과 가진 영역임을 알려주고 주변으로부터 분리되어질 수 있도록 폐쇄적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방된 독서공간과는 벽으로 시선이 차단되어지고 반대편에 작은 원형 창을 통해 개방적 독서공간보다 적은 양의 빛의 유입을 유도한다. 	벽으로 분리되어진 개별적 공간은 안정되고 차분한 느낌의 녹색으로 이루어져 있어 개인적 사고를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주변으로부터 분리되어진 공간 속에서 독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경	내부 조경	 	로비에 들어서면 전면이 구성되어 있는 내부 조경영역으로 3층의 층고로 되어있고 코어와 맞닿아 있어 입체적인 방향감으로 경관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도서관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물, 식물, 빛이 조화되어 강한 생태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조경영역의 한 쪽 면 전체가 3층까지 유리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연채광이 되고 있고, 각 층마다 개방된 휴게공간과 맞물려 있어서 반대편으로부터 유입되는 빛도 조경영역 내부로 유입된다. 	내부에 들어서면 시각과 후각에 의해 우선적으로 감지되는 요소로 도서관 내부 공간 모두에서 체험할 수 있는 자연공간이다. 자연적 요소로부터 생명감각을 느낄 수 있고, 빛과 공존하는 공간으로부터 열감각을 체험시킨다.
유희	단순한 움직임		다른 사례에서 볼 수 없었던 공간으로 코어 부분에 버려지는 공간을 어린이들의 신체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하여 자유로운 움직임을 유도하고 있다.	1층 코어부분에 마련된 공간으로 사진에서 보이는 계단 왼쪽 부분에 배치된 창으로부터 빛이 유입되어 자칫 어둡고 버려질 수 있는 공간을 밝은 분위기로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활발한 신체활동을 돕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서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은 신체적 활동이 자제하도록 하고 고유운동 감각과 균형감각을 훈련시킬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여 신체적 활동을 돕는다. 타인과의 교류를 위한 공간으로 자아감각과 언어감각 형성을 지원한다.

3) 연수 어린이 도서관

	특성	대상장소	프로그램	채광 (빛은 시각, 열감각, 등의 감각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요소).	치유적 지원성내용
독서	개방형 공간		내부의 대공간에 기둥을 경계로 전면창이 있는 면으로 개방적 독서공간이 제공되고 다른 편에 서고를 배치하였다. 복층구조로 독서기능을 제공하는 공간은 층고가 두개층높이로 트여있다.	 개방적 독서공간에 계획된 천창과 벽면의 전면 창을 통해 자연의 빛이 유입되고 1, 2층의 독서 공간 전체에서 넓은 외부조망유입과 함께 채광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경직될 수 있는 독서의 공간을 빛의 에너지로 채워 시각적으로 밝음을 인식하게 되고, 열감각의 작용을 돕는다. 또한 개방형 독서공간은 타인과 같은 공간을 공유하며 교류를 통해 언어감각과 자아감각 형성에 도움을 준다.
			대공간에 단차 있는 공간을 구성하여 독서를 위한 영역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조경	외부 조경		공간의 제약으로 활동을 위한 외부 공간은 제공되지 않는다. 내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적 이미지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어 창이 배치되어 있는 공간엔 조경의 요소가 함께 배치되어 있다.	 계단실 하단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창으로부터 빛이 유입되어 자칫 어두워 질 수 있는 공간을 밝혀주고 있다.	아파트의 경직된 이미지를 차단하고 시각적으로 자연의 요소에 집중적으로 접하면서 생명현상을 보다 인상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생명감각의 작용을 돕는다.
운동	교육 프로그램 요소		어린이들의 체험을 통한 교육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운동, 미술, 음악 등의 체험 수업이 이루어진다. 첫째 공간은 미술, 음악과 같은 소극적 신체 활동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아래의 대공간은 공연장의 성격을 가지며 어린이들의 직접적인 신체활동을 위한 공간이다.	운동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공간의 한 쪽 벽면에 있는 창문으로부터 햇빛이 유입되어 공간 전체에 쾌활한 분위기를 만든다.	어린이의 운동, 음악, 미술의 행위를 위한 공간으로 교육을 통한 12감각의 훈련 작용을 지원한다. 독서공간으로부터 분리되어있는 개별공간으로 활동의 제약이 없다.
				규모가 큰 공연장 또한 창문을 배치하여 빛이 공연장 전체에 유입되어 관람행위 외에도 관객간의 커뮤니케이션 또한 돕도록 계획되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사례를 통하여 어린이도서관이 독서치유의 기능을 중심으로 미술과 음악의 리드미컬한 측면을 포함하는 운동치유와 조경치유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구성된다는 가정아래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첫째, 어린이도서관의 주된 기능인 독서치유를 지원하는 공간은 벽이나 유리로 인한 차단 유·무를 기준으로 개방형 공간과 폐쇄형 공간으로 구분되어진다. 개방형 공간은 전면 창의 배치나 복층 구조로 되어있어 시각적으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구조이며 타인과의 교류를 통한 감각의 작용을 지원한다. 폐쇄형 공간은

직사광선보다는 간접적인 빛의 유입을 통해 안정된 분위기를 형성하고 독서의 기능에 집중하여 심리적 평안감과 깊은 사고를 지원하는 공간을 제공한다.

둘째, 운동치유 행위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공간과 일반적 신체활동을 유도하는 공간으로 구분되어 계획되어진다. 신체적 활동이 활발한 시기의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도서관의 내부나 외부에 배치되며 안정감보단 해소감 내지 해방감을 통한 심리치유를 지원한다.

셋째, 조경치유 행위는 앞에서 언급한 독서, 운동의 행위와 상호 연관된 공간에 주로 형성되어지며 안정감과 해방감 양 측면을 모두 지원하는 형식으로 제공되어진다.

어린이들은 사례분석에서 분석한 도서관의 공간속에서 슈타이너가 말한 12감각의 상호 연관된 체험을 통해 내·외적으로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한다. 감각의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제공되어야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공도서관은 감각의 통합적인 작용을 지원하는 전인적 치유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독서 및 자료보관소 기능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

현대의 어린이 도서관은 기본적 기능의 충족이외에도 심리적 평안과 해방감간의 조화를 수용하는 전인적 치유의 관점에서 다양하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계획됨으로서 상업적 학원공간과 차별화된 근린 공공시설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염주희, 발도르프 교육학에 관한 연구 :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2. 김미숙, 루돌프 슈타이너의 교육예술론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3. 정윤경,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교육론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4. 이수연, 3-6세 유아의 영역별 발달 촉진을 위한 단계별 음악치료교육 활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5. 윤희원, 발달장애아를 둔 초등학교 형제자매의 미술치료활동에 관한 경험-내러티브 탐구 방법론-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6. 이재연,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독서 치료와 적용과 전망,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센터, 2001
7. 양희아, 전인치유를 위한 춤/동작 치료 프로그램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8. 강혜원, 치료정원 관점에서 본 친환경 아파트의 정원실태조사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9. 윤선숙, 아동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독서치료 방법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0. 정정순, 정여주,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 예술치료, 학지사, 2004
11. 알베르트스스만, 영혼을 깨우는 12감각, 섬돌출판사 2007
12. 김광호, 생태적 매트릭스 공간, 미건사, 2004